

9월 물가6개월만에 1%대...전셋값 1년7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보이며 6개월 만에 1%대를 회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저유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긴장마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100)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0.1%) 0%대로 내려앉았다.
 5월(-0.3%)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6월(0.0%) 보합을 보인 후 7월(0.3%), 8월(0.7%)에 이어 3개월째 오르세를 보였다.
 안경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 하락과 교육 분야 정책 지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식물가 상승 폭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저물가 흐름은 지속됐다"면서 "9월에는 유례없이 긴 장마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지난해 9월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3.5% 상승했다. 2011년 3월(14.6%)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2016년 10월(36.3%) 이후 4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34.7%나 올랐다.
 과일 또한 15.8% 오르면서 2017년 6월(18.3%)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채소류와 과일류만 전체 물가를 0.81%포인트(p) 끌어올렸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가 67.3% 올랐다. 무(89.8%), 파(40.1%), 토마토(54.7%), 사과(21.8%)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

통계청 '2020년 9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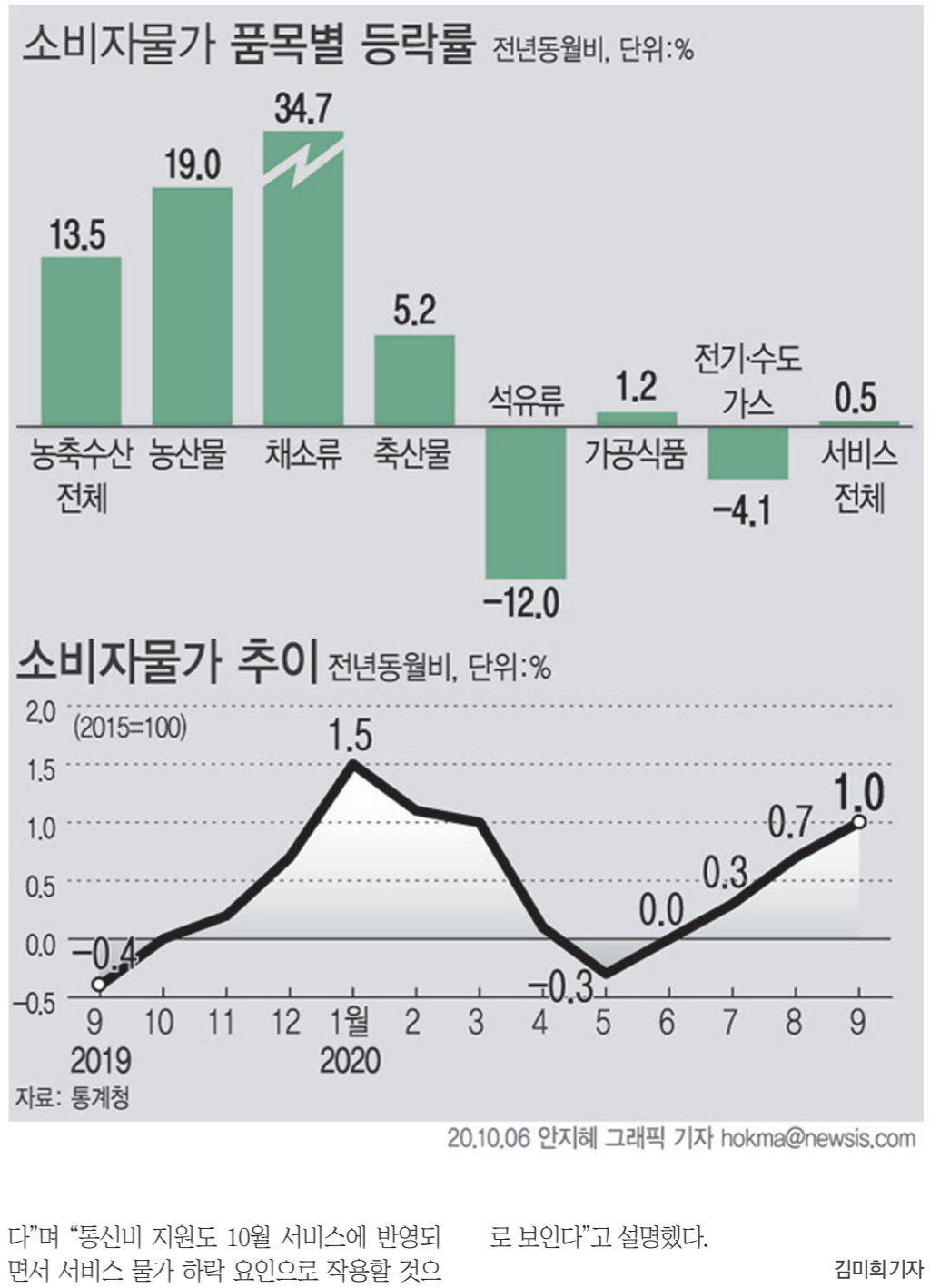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13.5% ↑ ... 9년 6개월 만에 최대

채소류 34.7% 상승... 47개월 만에 최대폭 ↑

전세 0.4% 상승... 전세 0.5% ↑ · 월세 0.3% ↑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19.0% 올랐다. 2011년 2월(20.8%)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셈이다.
 다만 이달 말 가을 김장용 배추가 나오면서 채소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 봤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곡산 쇠고기(10.6%), 돼지고기(7.5%) 등의 상승으로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7.3% 올랐다. 수산물 가격 역시 전년보다 6.0%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0.7%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1.2% 올랐으나 휘발유(-11.2%), 경유(-15.9%), 등유(-14.1%) 등 석유류가 12.0% 하락한 원인이 컸다. 도시가스(-10.3%), 지역 난방비(-2.6%) 등이 인하하면서 전기·수도·가스도 전년 동월 대비 4.1%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정책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1.4% 하락하면서 낮은 상승률에 머무른 것이다.
 개인서비스는 1.3% 올랐으나 이 중 외식 물가는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예년의 경우 2~3%씩 외식 물가가 상승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집세는 2018년 8월(0.5%)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세는 2019년 2월(0.6%) 이후 최대치인 0.5% 상승했으며 월세

도 2016년 11월(0.4%) 이후 최대 상승 폭인 0.3%로 조사됐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0.9% 상승하며 8월(0.5%)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나 상승했다.
 이는 2011년 2월(21.6%) 이후 최대 기록이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9% 상승했지만, 지난 7월(1.0%) 이후 1년 2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2월(1.1%) 이후 1년 7개월째 0%대를 유지 중이다.
 소유투자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여 여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을 추가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8% 올랐다.
 안 심의관은 "국제유가 하락이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더 하락할 수 있



다며 "통신티 지원도 10월 서비스에 반영되 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미희기자

'코나 전기차' 운전자 "걱정 또 걱정"

연쇄 화재-고가 수리비... "고장나면 차 바꾸는게 낫다"



현재까지 정확한 전기차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전에 발생했던 코나 전기차 화재에 대해 배터리 내부 원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차를 충전 중인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현대차는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수리비 최소 1000만원 이상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차의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만약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만 수천만원이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지만 사소한 고장에도 차량 한 대 가격이 맞먹는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나 전기차의 차량 가격은 4650만원에서 4850만원이다.
 대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 직원 정모(35)씨는 "전기차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수리비가 확실히 비싼 것은 사실이다"며 "작은 결함에 대한 수리비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전기차가 전소됐다면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 만큼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전기차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의 불만은 전기차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터리 내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코나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한 상태.

김민정기자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코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나 전기차는 출시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로, 지난해에는 1만 3000여대가 넘게 판매됐다.
 ◇달성군 전기차 화재는 전 세계 12번째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 세계 통틀어 12번째 사고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보다 앞서 11번째 사고는 제주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제주 일도2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중전 중이된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배터리가 설치된 차량 하부를 태우고 22분 만에 꺼졌다.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2540만원이다.

직장인 10명중 8명 "투잡 의향 있다"... 기대수입 평균 61만원

직장인 73.1% "투잡 여부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것"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투잡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투잡을 통해 기대하는 월 수익은 평균 61만원이었다.
 6일 잡코리아가 지난 9월 23일-10월 5일 직장인 642명을 대상으로 '투잡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 중 84.1%가 투잡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기혼(78.5%)보다 ▲미혼(86.0%) 직장인 그룹에서 투잡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높았다. 연령대 별로는 ▲20대(86.5%)와 ▲30대(86.0%)가 평균보다 투잡 의향이 높았고 ▲40대 이상 그룹은 '투잡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76.3%로 가장 낮았다.
 이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투잡을 조사한 결과 전체 1위에 '서비스직'이 꼽힌 가운데, 2위부터는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20대의 경우 서비스직에 이어 '유튜버(1인 미디어)(31.7%)'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2위에 올랐다. 이어 30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투잡 2위는 '쇼핑몰/세포마켓(SNS)(30.8%)'이었고,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서비스직에 이어 '배달/택배/대리운전(O2O서비스)(20.8%)'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투잡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85.6%)'였다. 이외에 '평소 흥미를 가지고 있던 일을 해보기 위해(17.0%)'와 '퇴근 후 시간이 남아서(16.5%)', '자기계발/취미생활의 일환으로(13.7%)', '창업 등 새로운 커리어 준비를 위해(13.7%)' 투잡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기대하는 수익은 평균 61만원이었으며, 투잡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



같은 하루 평균 '3시간(34.6%)', '2시간(22.0%)'가량이었다.
 신봉우기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모집... 온라인 합동채용설명회

전국 혁신도시 102개 공공기관 참여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1월30일까지 8주 동안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와 청년 취업 촉

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도별로 8회 실시해 1만3500여 명의 취업준비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신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 기간을 대폭 늘려서 8주간 진행한다.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난 6월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등 모두 102곳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채용설명회 누리집(www.innocity-jobfair.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별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서선옥기자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 전년 동기비 6.5% ↑ ... 전통식품 호조

김치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미·호주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 성과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와 장류를 비롯한 전통 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3분기 누계 기준 농

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9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류별로 보면 신선농산물이 9억8670만 달러로 0.2%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김치(1억850만 달러)가 38.5%나 성장했다. 이는

2012년 수출액인 1억661만 달러를 넘어 3분기 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2012년 당시 김치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80%에 달했는데 올해는 최초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미국·홍콩·호주·대만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다.
 정승호기자